

## 바다의 순 우리말인 '아라', 그 바다가 품어낸 땅 인천에서 보내오는 춤의 서사시

항해를 향해 열려있는 땅-인천, 그 바다를 넘나드는 바람 같은 사람들의  
역동적인 추상을 춤으로 그려낸 인천시립무용단의 <아라의 서(書)>가  
12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오른다.

<아라의 서(書)>는 창세설화나 민담 속에 출현하는 강렬한 신화적 인물이 중심이 되어 바다  
에서 탄생한 문명과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는 한 편의 서사시  
와 같은 작품이다.

신화적 대서사시를 심상으로 만든 창작춤과, 그 춤의 결을 함께하는 전통춤 레퍼토리들을 엮  
어낸 이번 작품은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인천시립무용단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한 무대에서  
만나볼 수 있다. 새로이 창작되는 집단춤의 장대함, 무용수 개개인의 수려하고 안정적인 연  
기력, 역동적으로 전환되는 무대 미술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작품은 깊은 호흡  
으로 전달하는 우리 춤의 벅찬 감동을 함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.

### 창세설화적 서사에 담아낸 우리 춤 레퍼토리 : 전통춤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다.

작품 <아라의 서(書)>는 새로운 문화의 시  
발점이 되어온 물의 도시 인천이 가진 역사  
적 상징성을 신화적 성격의 인물로 집약하  
고 그 인물이 그리는 이야기를 따라 인천시  
립무용단의 다양한 레퍼토리 춤을 만나보는  
형식이다. 생명의 탄생과 번영, 그리고 그  
힘을 미래로 이어 보내는 창세설화적 이야  
기 틀에 전통춤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엮어  
낸 이번 공연은 생명이 들끓는 서막으로 공  
연을 열어 '해무-탄금-장산-아라의 서'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진다.



### 작품을 이끌어가는 두 명의 여인 - 박은하, 윤미향

<아라의 서(書)>를 이끌어가는 주역 '쇠를 든 여인' 역의 박은하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위원  
으로 우리 소리와 춤의 역사를 이끌어나가고 있다. 무대 위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람과 같  
은 인물의 자유로움을 그대로 표현해낸다. 또 다른 주역인 윤미향은 인천시립무용단의 역사를 함  
께 해오며 사물과 무용 등 장르를 넘나드는 활약을 해왔다. 이번 공연에서는 그간의 해석적 이미  
지에서 탈피해 강인한 생명력의 신화적 인물을 소화해낸다.

### 생명과 시작의 도시 인천에 현정하는 <아라의 서(書)>

바다와 맞닿은 지리적 특성으로 새로운 문물의 도입지이자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이 되어온 인천,  
그 격동과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굴하지 않는 강인한 개척 정신, 새로움을 향한 의지가 살아 숨  
쉬고 있었다.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신화적으로 차용한  
<아라의 서(書)>는 인천의 자화상이자 인천에 보내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연서이기도 하다.



#### 주요제작진

총기획 김유미 작·연출 김윤수 안무 김윤수, 김유미 음악작곡 황호준 무대·소품디자인 심재욱 조명디자인 이나구 무대감독 김미연 의상디자인 민천홍, 신근철  
홍보물디자인 여현정 분장 오세금 사진 유재형 비디오 지화충 스포트라이트 및 영상물 제작 최진규 소품제작 노대성 기획·홍보: 이재필(단무장), 김영아, 이현미, 이수용